재정경제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4.23.(목) 09:00

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,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재정-통화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

-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경제부총리-한은총재 간 첫 회동

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'26. 4. 23.(목) 오전, **한은총재 취임 후 처음으로 조찬을 겸한 회동**을 가졌다. 이번 만남은 4.21일 **한은총재 취임 이후 이틀**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자리로 **총재 취임을 축하**하고, 향후 **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** 위해 마련되었다.

먼저 부총리와 한은총재는 **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**을 공유하고 **향후 정책대응 방안**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최근 **중동전쟁** 관련 **불확실성 지속**에 따른 **고유가, 공급망 불안** 등으로 **경기 하방 및 물가 상승 위험**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, **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**을 바탕으로 **재정정책**과 **통화정책**을 **조화롭게 운용**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아울러,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**금융·외환시장의 안정**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, **외환시장 24시간 개장,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** 등을 통해 **원화 국제화**를 **적극 추진**하고 **금융·외환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**에도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.

한편, 당면한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**성장잠재력 확충, 양극화 해소** 등 **경제·산업 구조개혁의 중요성**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, **AI·녹색대전환, 초혁신경제** 등 **주요 과제 추진방향**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**부총리**는 한국은행이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**구조개혁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**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**한은총재도 이에 적극 기여**하겠다고 화답하였다.

부총리와 한은총재는 앞으로 **시장상황점검회의** 등 **기존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**하는 한편,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나 **격의없이 의견을 나누며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**을 **공고히 해** 나가기로 하였다.

재정경제부	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근우 (044-215-2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민 (jeeminkim@korea.kr)
한국은행	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	책임자	팀 장 이화연 (02-759-4461)
		담당자	과 장 이병록 (lbr1225@bok.or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